

#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족치료 연구

-대상관계이론(the Object-relation Theory)을 중심으로 -

박은배(석모교회목사, Ph.D)(상당기타 6-1)

## 논문초록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접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애정적 신뢰, 위안과 존경 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공간적 장소와 함께 그 속에서 가족들이 그들의 신념이나 애정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 있다고 믿는 기독교 가정의 이혼율이 높다. 한국가정 법률상담소의 통계자료를 보면, 종교인 이혼율을 살펴보면 개신교인이 27%를 차지하고, 불교인 10%, 가톨릭 교인이 8%로 뒤를 이었고, 또한 이혼을 고려하는 개신교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국 가정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1만 6,500건에 달하던 이혼율이 2009년에는 12만 4000건으로 6.4% 증가 하여, 2009년에는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1위가 되었다. 이제 교회가 이들 일반 가정과 기독교 가정을 위하여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연구자는 대상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연구하였다.

---

**핵심용어:** 대상, 대상관계, 가족치료 자기표상, 대상표상, 하나님 표상, 자아분화, 탈 삼각화, 자존감, 이마고, 심정대화

## I. 서론

에밀 브루너(E. Brunner)는 가정을 성경적 의미에서 재조명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신학적 의미에서 가정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 영역으로서 인간의 결합, 생산, 그리고 사회보다 먼저 존재해 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그들 사이의 생산의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동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정의 존재 구조를 창조하셨으며 존재 구조에서 신비적 연합의 근거를 찾는 인간들의 사랑도 창조하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학적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존재구조이며 동시에 사랑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학이 제시할 수 없는 접근으로 보았다.

브루너가 말했듯이 가정의 존재 구조 안에서 신비적 연합을 사랑으로 보았는데, 이 연합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는 긴장과 이완 연속 속에 살아야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중요한 동기를 욕동(drive)으로 보았으나,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를 대상 추구로 보고 이 동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간 본질의 중요한 부분을 관계성으로 보았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은 초기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기반이 형성됨으로, 초기 부모와의 대상관계 경험은 부모-유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내면화되고 심리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린 시절의 주요 타자와의 관계가 자기 표상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좋은 자기표상이 형성되기도 하고 병리적 자기표상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대상관계에서 만들어진 자기표상 속에 병리적인 요인을 찾아, 좋은 자기 표상으로 치료해 가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관계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가는 아니지만, 보웬의 이론인 자아 분화와 탈 삼각화 이론 그리고 코헷의 자존감 회복 방안도 주의하여 보았다. 가정의 병리적인 요소가 세대전이 되지 않도록 가족 간의 대화, 특히 부부 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II. 가정에 대한 이해

기독교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인하였으며 에덴동산의 부부로부터 시작 되어 졌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홀로 살수 없기 때문에 이성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졌다. 따라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출발이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었다는 신성함을 포함하고 시작한 것이 기독교 가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은 인간이 형성한 1차적인 사회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의 첫 시작의 장(場)으로서 의식주 문제와, 결혼, 출생, 육아, 성적 만족 등을 누리며 안식을 얻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모습이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의 시작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정의 정의도 학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이란 『국어대사전』에서는 부부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자녀 등 근친자들이 함께

모여 의(衣), 식(食), 주(住)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생활공동체)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sup>1)</sup>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 구성원인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보며, 부부라는 남녀가 모여서 상부상조하며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조직체가 지금부터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sup>2)</sup> 국어대사전에서는 단순한 집단생활에 초점을 두었으나 동아원색대백과사전에서는 가족 관계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되어져가는 진행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독교 시각으로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한 하와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결혼과 가정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창2:24) 성년으로 자란 인간은 부모를 떠나 살아야 하며, 이성 혼자서 사는 것이 불완전한 인격체임으로 이성이 부부를 이루어 살아야함을 말하고 있다. 보완적인 의미로 부부가 서로 결합하는 것이 가정의 출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3)</sup>

고정자에 의하면 머독(Murdock)은 가족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며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하고 또한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sup>4)</sup> 레비-스트라우스(Levi-Strauss)는 가족은 법적 유대와 경제적, 종교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성적 권리와 규제등 심리적, 경제적, 법적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 정의 하였다.<sup>5)</sup> 버게스(Burgess)는 혼인, 혈연, 혹은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창조, 추진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sup>6)</sup> 버틀러(Bertler)와 그의 동료들은 아동을 통해서 형성되어 양자 또는 출생을 통한 2세대 간의 연결을 이루는 부모-자녀 관계를 가족이라고 보고, 결혼한 커플이라도 그들이 자녀를 갖기 전에는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현대가족이 지닌 다양성과 복잡성을 배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네슬리와 코만(Leslie & Korman)은 미국의 센서스에서 더욱 간단하게 “두 명 이상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혈연, 결혼, 또는 입양의 관계를 가진 경우”를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sup>7)</sup>

보웬(Bowen)은 가족을 “연속적으로 결합되어진 체계와 하위체계로 구성된 콤플렉스(complex)의 실체이자 정서적 체계이며 그 뿌리가 인간 생물학상의 본질에서 발견되는 가족은 인간이 발생된 모체”라고 하였다.<sup>8)</sup> 오늘날 가족을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역동적인 집단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정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고, 문화 간 그리고 심지어는 동일한 문화 내에서도 변화한다. 다시 말하면 최근 가족은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유아의 양육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으며, 공동거주 보다는 이웃에 거주하

1) 정운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0), p. 34.  
 2) 김현식,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2), p. 225.  
 3) 엄정수, 『한국 가톨릭 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pp. 46-47.  
 4) 오영희외, 『가족관계』 (서울: 동문사, 2007), p. 13.  
 5) 유영주외, 『가족 관계학』 (경기: 교문사, 2009), p. 5.  
 6) Ibid., p. 5.  
 7) 고정자, 『현대가족문제론』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p. 9.  
 8) Ibid., p. 9.

기를 더욱 희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모 세대는 육아의 대가로 경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양계간의 불문계약과 같은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양계, 3세대 계약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9)</sup>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광규는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가족이란 가족구성원, 동거 동락하는 생활 공동체라는 것 이외에 가옥, 가문, 가풍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의 문화 집단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이효재는 “가족은 사회조직의 가장 원초적 집단으로서 개인이 출생하여 자라며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보금자리이며, 가족 속에서 자아 중심적인 어린아이들이 한 공동체 속으로 연결되어지며,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장”이라고 정의하였다.<sup>11)</sup>

루이스 셰릴(Lewis J. Sherrill)은 히브리인들에게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가정은 곧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지적한다.<sup>12)</sup> 구약적 가정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실천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장으로서 예배와 교육과 위로와 보존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예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였는데, 혼인의 소중함을 나타낸 이적이다. 또한 가족들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다. 예수는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켰다(마8:14). 또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었다(눅8:40-56).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했다(막7:26-30). 그리고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렸다(눅7:11-17). 나사로를 살려 베다니에 있는 누이들에게 돌려보냈다(요11:11-14). 또한 예수는 여러 가정들의 온정과 환대를 즐겨 받았다(마8:14, 마9:9-10, 눅19:17, 요11:1-5). 부활 후 처음 나타난 장소 가운데 하나도 엠마오에 있는 가정이었다(눅24:28-31). 뿐만 아니라 예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진지하게 대해주기를 당부했다. 마18:3-6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하며 중요하게 여겼다.

가정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결코 일종의 생활 방편이나 사회적 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으며, 가정은 거룩한 관계였으며, 결혼은 신성한 인격적 결합이었으므로 가볍게 파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는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13)</sup>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집중되었으며 이 결합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결혼이 너무 쉽게 그리고 이기적으로 성립되고 신속히 파기되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예수의 가정관은 우리에게

9) Op. cit., pp. 9-10.

1970년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백악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 자료 제목에서 ‘복수가족(families)’을 ‘단수가족(the family)’으로 수정하기를 원하는 보수학자들과 원래 제목대로 고수하기를 원하는 자유학자들 간에 신랄한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보편적인 가족은 단지 하나밖에 없다는 보수학자들의 신념 때문에 한 가지만을 사용하라고 카터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10) 유명주외, Op. cit., p. 5.

11) 류종훈, 『가족 상담학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2001), pp. 14-16.

12)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4), pp. 17-18.

13) G. Harkness, 『기독교윤리학』 김재준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174.

하나의 지표가 된다.<sup>14)</sup>

기독교에 근간을 세운 사도 바울의 가정관도 신약성서에 한 축을 이룬다. 바울도 예수와 같이 결혼을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로, 신성한 언약을 내포한 것으로 보았다.<sup>15)</sup> 바울은 결혼의 신성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고전7:14) 바울은 비 그리스도인의 결혼 까지도 하나님의 규례의 틀 속에 넣어 생각했다. 따라서 기독교의 결혼 관계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고하게 다져준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조명하여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사랑의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정의 한다. 가정을 모든 공동체의 근원이며 원형으로써 이 기본적인 공동체의 권리는 다른 어떤 공동체, 특히 국가의 권리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가정은 창조질서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자의로 결혼과 가정의 법을 제정할 수 없다. 현대 가정의 근본적인 위기는 가정의 존재를 구성하는 근거의 상실에 기인한다. 인종 번식을 가정의 존재 이유로 외치고 나선 자연주의적 해석도, 사랑만이 가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낭만주의의 논거도 가정의 정체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나 가정 구원은 될 수 없다. 그것들은 가정을 이해하는 초월적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신학적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임으로 창조질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어지는 언약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로스와 필리아를 근거로 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 기독교 신앙공동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가정의 일반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족 제도는 가부장적(家父長的)인 부계가족으로 전해 왔다. 가부장은 가족의 대표권을 가지며, 가족권, 재산권, 제사권을 가진다. 가부장 아래서 가족 구성원의 자유는 제한되지만 가족 구성원의 생활은 보장된다. 즉 가부장은 가족 구성원을 통제 감독하는 권리를 갖는 반면에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의 의무도 함께 가진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권한이 가장에게 주어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가족을 대표하는 가부장제에 완전히 예속적 이었다. 순종과 인내만이 강요되어온 당시에 여성 생활은 여필종부(女必從夫),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용어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전통가족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삼종지도(三從之道)<sup>17)</sup> 속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칠거지악(七去之惡)<sup>18)</sup>은 남성 중심으로 가족생활이 유지된 것을

14) 차영길, “온전한 가정을 위한 효과적인 목회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는 문 (2006), p. 54.

15) Jay E. Adams, *Solving Marriage Problems* (N. 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80), p. 26.

16) E. Brunner,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전택부 역(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3), p. 187.

17) 삼종지도(三從之道)는 여자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본인이 늙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여자의 일생 동안 아버지인 부, 남편인 부, 아들인 자에게 따르고 의존하고 예속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

18)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부정한 행위, 질투, 좋지 않은 질병, 말이 많은 것, 절도 등의 행위가 포함 된다.

볼 수 있다. 여자 입장에서 이를 어기면 친절으로 쫓겨 가거나 이혼을 당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가장의 절대적 권위를 세우며, 자손을 끊이지 않고 대를 잇기 위하여 남자는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으며, 가족의 질서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종과 모든 희생을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전통적으로 한국 가정의 배경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리 정서적 특성을 집단주의의 ‘집’개념, 한, 정, 체면, 서열의식, 집단의식,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집단주의의 ‘집’개념으로 “집”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의식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조직과 가족 내적 조건으로 인하여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구조에 뿌리 깊이 숨어있고 전수되고 이는 것으로 “집”중심의 가족의식은 우리의 가족생활과 행동양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恨)은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심층적인 한국인의 정서적인 특징이다. 한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마음을 뜻하는 심(心)과 가만히 멎어 있다는 간(艮)이 어우러진 문자로서 즉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한은 욕구와 의지의 좌절과 그의 따르는 삶의 파국에 대한 강박감과 마음의 상처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적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sup>20)</sup> 고부간의 파괴적인 전이는 민요로도 그 한이 전해진다.

“어매 어매 우리 어매/ 뭘 먹고 날 맹글었나  
우리 어매 날 날 적에/ 죽순 나무 먹었던가  
마디 마디 육천 마디/ 마디 마다 설움이네”

(남부지방민요)

정(情)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과 공동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오랫동안 상대방과 같이 좋은 일과 궂은일을 겪어 나가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진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곧 정든 상태인 것이다. 심리학 용어로 표현하면 정이 든다는 것은 결국 상대의 존재에 의해 조건화되는(conditioned)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가정 속에 나타난 종교적 특징으로 종교는 사회에서 문화적인 핵심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및 내세관,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은 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도 마찬가지다. 종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종교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로 매저키즘과 새디즘적<sup>21)</sup> 경향을 강화 시켰다. 유교적 전통은 중국 봉건사회를 배

19)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법문사,2002) pp. 19-20.

20) 임태섭, “못다 한 정은 한으로 남 2002)는다”, 『정,체면,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한나래), p. 75.

21) 매저키즘(masochism)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게 하여 성애(性愛)의 충족을 이루고자 하는 성심리 장애이다. 이 용어는 오스트리아 작가 슈발리에 레오폴트 폰 자허 마조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는 매를 맞고 굴복당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에 대해 광범위한 저술을 펴냈다. 매저키즘과 관련된

경으로 삼고 형성되었으며, 유교 사상 가운데 주자학(朱子學)은 젊은 세대나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였다. 특히 조선왕조가 국교로 숭상한 주자학은 일상생활에서의 말과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항상 부담스러운 억압으로 다가왔다.<sup>22)</sup>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성체(四聖諦)<sup>23)</sup>에 있다. 불교 사상에는 영혼도 신도 없다. 불교는 영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윤회전생을 하다가 불타가되면 열반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인생을 괴로움(苦)으로 보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관심이 있다. 불교에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苦)이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성체이다. 불교의 인생관, 내세관 등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깊이 뿌리 내려 있다. 무교(shamanism)의 세계관은 이원론적 구조로 저승을 이승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무교의 세계관은 대립이나 갈등보다 조화와 포용을 추구하며, 추구하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현세적 삶이다. 또한 한을 풀어 액을 피하고 복을 받는 일이 궁극적 목표다. 따라서 무교의 세계관은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동에 ‘현세적 물질주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 돈, 성공, 출세 등이 중요한 신앙의 동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24)</sup> 무교의 신관은 분명한 성격을 지닌 신이 없으며 대부분 선, 악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인간의 대접에 따라 선, 악이 결정 된다. 또한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이나 불운은 모두 귀신의 탓으로 돌린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화가 한국인 속에 녹아 있다. 집단의식이 강하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보니 임지(任地)를 자주 옮기는 목회자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집단인 ‘우리 속회(또는 구역회)’가 있다. 우리 속회 안에 ‘우리 가정’이 있다. 이런 집단의식은 긍정적으로 작용 할 때는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작용 할 때는 심한 분열이 발생한다. 사랑을 외치면서도 교단이 분열되어 개신교회 교파수가 1993년 통계에 의하면 168개나 되는 것을 보면, 너무 배타적인 한국 교회의 일면이다. 가정에서도 교회 다니는 아버지만 옳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에게 너무 배타적이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와같이 배타적인 모습이 가정에도 녹아 있음으로 한국 기

---

고통의 정도는 약간의 폭행을 수반하는 의례적 모욕으로부터 심한 채찍질이나 구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학성향자(매저키스트)들은 어느 정도의 상황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학대가 지나쳐 심한 상처를 입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 사람에게도 고통이 어느 정도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피학성향자들에게는 고통이 성적 행위의 주된 목표가 된다. 이 용어는 모욕이나 학대상황을 추구하고 즐기는 사람의 행동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매저키즘만 독립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적 쾌락을 얻는 새디즘(sadism)을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한 사람이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흥분상태가 되기도 하고 역할을 바꾸어서 고통을 가함으로써 흥분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22) 김태길, 『유교적 전통과 현대 한국』 (서울:철학과 현실사,2001) p. 19.

23) 사성체(四聖諦) 혹은 사체(四諦) 인데 고체(苦諦),집체(集諦),멸체(滅諦),도체(道諦)를 말한다.

체(諦, satya)는 진리라는 뜻이다. 사체는 인생의 네 가지 진리라는 뜻이다. 고체는 인생은 괴로움이란 뜻이다. 집체는 고는 왜 생기는가?란 의문에 집착 즉 생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걱정으로 생긴다. 멸체는 생에 대한 욕망, 갈망이 포기되고 파괴될 때 고통도 그친다는 것이다. 도체는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그치게 하고 그 결과 도덕적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도체를 간명하게 설명하면 팔정도(八正道)다. 도덕적 실천에 8개 조항-정견(正見),정사(正思),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이다.(김기현, Ibid., pp. 20-25)

24)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생각의 나무, 2007), p. 309.

독 가정이 타 종파에 비해 이혼율이 높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브루너가 주장하듯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 한국의 기독교 가정도 유교, 불교, 무속의 영향 가운데서 벗어나고, 정(情), 체면, 서열의식, 집단의식 영향에서 멀리하여야 한다. 양성이 평등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며 가정을 이루어 갈 때, 참다운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다.

### Ⅲ. 대상관계 이론과 가정

가족이란 가장 원초적이고 친밀한 일차적 집단이다. 그 안에 살면서 때로는 실망하여 단절하고 싶지만 어렵게 유지해 가야만 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가족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가족 속에서 죽는다. 어떤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자유도 없이 오직 태어남을 받았다. 그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습득하고 영향 받아가며 살아가야 한다. 가족 안의 주요 대상들과 만남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져 간다.

유아는 처음에는 자기로부터 타인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을 다만 자신의 일부로서만 지각한다. 그러다 점차 대상을 자기로부터 분리하게 되면서 자기와 자기 아닌 것(Me & Not-Me),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을 구별하게 된다. 이 자기표상은 한 개인이 어떻게 타인에게 관계하고 세계에 대응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이 자기표상이 다른 정신 과정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데, 예컨대 투사와 다양한 형태의 동일시 및 내면화 등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대상에 대하여 프로이트(S. Freud)는 유아의 최초의 대상으로서 어머니 그 자체보다도 유아의 욕구를 채워줄 어머니의 젖가슴을 말했는데, 후에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유아는 처음에는 자기로부터 타인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을 다만 자신의 일부로서만 지각한다. 그러다 점차 대상을 자기로부터 분리하게 되면서 자기와 자기 아닌 것(Me & Not-Me),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을 구별하게 된다. 이 자기표상은 한 개인이 어떻게 타인에게 관계하고 세계에 대응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이 자기표상이 다른 정신 과정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데, 예컨대 투사와 다양한 형태의 동일시 및 내면화 등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혼란스럽고 불연속적이며 모순되고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경험들(예컨대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서 어머니와 좌절시키는 어머니)을 하나의 통합된 표상으로 형성할 수 없는 발달적 미숙함으로 인해 유아는 반대되는 속성들을 따로 떼어내어 지각하고 별개의 표상으로 형성한다. 다시 말해 유아는 최초의 취약한 성격구조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좋고 나쁜 측면들이 자기 내부에서 유발하는 갈등스런 감정들을 분리시키는 분열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특히 경계선 장애를 이렇게 분열된(split-off) 자기(self)라는 관점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병리를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프로이트(S. Freud)는 대상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sup>25)</sup> 프로이트(S. Freud)는

25) R. Hunter et. al.,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992. p. 80.

대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충족하는 그 무엇이라고 봄으로써<sup>26)</sup> 그 대상을 반드시 인격체로 말하지 않았다. 대상관계이론은 프로이트(S. Freud)의 본능론을 넘어서려는 대안으로서 부상되었다는 이 이론의 뿌리는 바로 프로이트(S. Freud)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On Aphasia>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Objektvorstellung(object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sup>27)</sup> 1905년에는 이 대상을 리비도가 투입되는 정신적 표상으로서 언급하였고, 그 후로도 대상의 내면화와 정신구조의 조직화에 관해 외부세계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대상으로서 포기되고 대신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 안으로 흡수되어서 내적 세계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S. Freud)에 있어서 또 그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대상이란 성적 혹은 공격적 리비도가 집중되고 또 이를 충족시키는 목표물로서 주로 외부의 실제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능과 결합된 이 내적 표상들이 무의식적인 환상으로 조직화되어서 그것들이 후기 발달과 선택, 사랑의 양상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sup>28)</sup>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에서 대상관계가 존재하기 이전의 단계가 몇 개월 동안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유아는 리비도를 자신의 신체에 부착시킨 채로 충동, 환상, 불안, 그리고 방어들 없이 대상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 즉 진공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정신분석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내적이건 외적이건 대상과 상관없이 본능적 충동, 불안 상황, 또는 정신 과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증오, 환상, 불안, 그리고 방어들은 처음부터 작용하고 있으며, 대상관계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9)</sup>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환경내의 사람이나 사물 또는 개체의 신체 내부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 하는데, 만족을 가져오는 대상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유아에게 있어서 대상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며 이 대상이 없이는 유아의 발달은 불가능해 진다고 본다. 이 대상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과 창의성은 발달되어 진다. 인간의 성품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성격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을 보면 성격이 모두 다르다. 큰아이는 수동적이고, 둘째 아이는 반항적이고, 막내 아이는 미숙하고 버릇이 없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육체적 엄마는 하나이지만 정신적인 엄마는 셋이 있다. 세 명의 아이들을 대할 때 큰 아이에게는 엄격했고, 둘째아이는 무관심했고, 셋째 아이는 과잉보호하며 허용적인 것이 엄마들의 일반적인 양육 태도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성격에 차이가 있다.<sup>30)</sup> 문제는 누가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을

26) Ibid., p. 81.

27) A. M. Rizzuot(1990). *The Origins of Freud's concept of object representation in his monograph 'On Aphasia'*: Its theoretical and technical importance. Int. J. Psycho-Anal. 71: pp. 241-248.

28) P. Buckley(Ed.), *Essential Papers on Object Relations*. Introduction. 1986, p. 8.

29) Hanna Segal, *Melanie Klein* 이재훈역(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9), pp. 186-187.

가진 사람이 양육 하느냐 하는 것이 성격 형성에 상당부분 좌우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니콧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엄마’를 통하여, 충분히 먹이고 재우며 불안할 때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엄마가 소중한 대상이 된다 하였다. 엄마가 없는 사람은 없다. 엄마-유아의 대상관계가 유아기 때 많은 영향을 받아가며, 또 전 생애를 통하여 만나는 새로운 대상관계로 성격이 수정되어 간다.

유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만나 가족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가정은 가장 원초적이고 친밀한 관계이므로 실망하여 단절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므로 어렵게 유지해가는 복잡한 관계가 가정이다. 정상적인 순기능 가족(functional family)도 있고, 비정상적인 역기능 가족(dysfunctional family)도 있다. 순기능 가정은 가족들의 욕구가 정상적으로 충족되는 가족이다. 이 가정은 도전과 위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며, 서로의 언약을 중요시 하며, 서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한다. 순기능 가정은 알고, 사랑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상상하는 힘들을 발휘할 탄탄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개개인은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며 자존(自尊), 자기애(自己愛), 자기수용 그리고 자유가 있다. 서로 접촉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며 서로 비취주는 거울이 되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 준다.<sup>31)</sup>

역기능 가정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동원 할 수 없는 가정으로 그 결과 스트레스로 하여금 더 긴장시키고 부서지게 만드는 가족이다’<sup>32)</sup> 라고 큐란(Dolores Curran)은 정의 하였다. 역기능 가정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알콜 중독자나,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돈 버는 일이나 직장 일에만 열중하는 일 중독자, 충동적으로 노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도박꾼, 외도로 배우자와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 이혼했거나 재혼한 가정에서의 엄격하고 불법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부모, 중풍이나 뇌성마비 같은 중병을 앓는 환자,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상대를 학대했던 부모, 근친상간 등 습관적으로 성폭행하는 아버지를 둔 가족 이라고 하였다.<sup>33)</sup>

많은 상담 이론가들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담과정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지만 대상관계 이론만큼 관계에 대해 깊은 이해를 제시하는 이론은 없다. 첫째, 대상관계 이론이 인간의 본질을 관계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맥을 같이 하며 보다 자세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성경은 관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 학자들이 대상관계 이론과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여기에서 보고 있다.<sup>34)</sup> 에베소서 5장의 부부간의 연합, 고린도전서 12장의 그리스도 몸의 지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들의 존재 바로 그 속에 내주하는 하나님 개념에 부합 된다. 둘째,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의 인격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려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

30) 임종렬, 『대상중심이론 가족상담』 (서울:한국가족복지연구소,2001), p. 102.

31) 존 브래드쇼, 『가족』, 오재은역 (서울: 학지사, 2006), p. 102.

32) Dolores Curran, *Stress and the healthy family* (Minneapolis: Winston press,1985), p. 3.

33) Chares Sell,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외 역(서울: 두란노, 1992), p. 11.

34) Stanton L. Jones 외, 『현대심리치료법』, 이관직역 (서울: 충신대학출판부, 1995), p. 140. 대표적 학자로는 R. Vanderploeg, S. White, L. Jr. Greenlee 등이 있다.

을 잘 활용하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인간 내면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상관계 이론은 프로이트가 인간 내면의 ‘희미하고 어두운 영역’이라고 했던 차원에 대한 설명을 시도 했듯이,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증이나 성격장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sup>35)</sup> 셋째,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간의 병리로 규정하는 증상들은 사실은 인간의 죄를 근원적인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창세기 3장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인간, 인간-인간, 인간-자연의 관계는 모두 병들고 왜곡되었다. 특히 인간-인간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 인간 상호간의 거짓과 반복과 질서, 살인이 벌어지게 된다.<sup>36)</sup> 넷째, 위니콧이 말한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개념은 인간의 심리적, 영적 건강성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틀이 된다. 위니콧은 유아가 엄마의 적절한 반영과 공감을 받지 못할 때 자기의 참 모습을 억압하고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거짓 자기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신앙적으로도 미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병리적인 신앙을 발달시킨다.<sup>37)</sup> 다섯째, 대상관계 이론은 신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 표상(God-representation)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실제의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목회 상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31.4%), 멀리계신 하나님(24.4%), 인자하신 하나님(23%), 비판적인 하나님(16%)으로 나타났다. 흑인과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엄하신 하나님(68%)로 가장 높이 나타났고, 주류 개신교와 가톨릭은 멀리계신 하나님(29.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과 실제로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표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sup>38)</sup> 여섯째,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은 목회자와 목회상담가의 인격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 페어베언은 상담자가 가진 좋은 요소들이 내담자를 치료하는 요인이라고 한 것과, 위니콧의 ‘충분한 좋은 어머니’나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코헛의 ‘자기대상(self object)’ 개념에 내포된 상담자의 인격 특성은 목회자와 목회상담자에게도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IV.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대상관계에 근거한 가족치료 방안

대상관계는 관계를 중시한다. 가정도 관계를 떠난 구성원은 존재 할 수 없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자기표상을 이루어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표상은 이마고(image)인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가로막는 기제들이 무

35) 문희경, “대상관계 이론의 관계중심 목회상담적 적용 가능성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p. 96.

36) 김광열, “총체적 복음과 구원, 그리고 총체적 회심,” 『신학지남』 (2005), pp.129-156.

37) 최재락, “인격장애 안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종교경험,” 『기독교상담학회지』 (2004), pp.301-322.

38) 『기독교신문』 2006년 9월 19일. 미국 베일러 대학교 종교 연구소와 갤럽이 공동 설문조사하였고, 이 결과는 “21세기 미국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문희경, Op. cit., p. 98. 재인용)

의식중에 만들어지게 된다. 자기 이미지를 보충해줄 대상을 찾게 되고, 부부도 자기에게 없는 정서적 이미지를 가진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가족의 핵이 어머니라면 그 핵을 중심으로 멀게 혹은 가깝게 그 핵(核)의 주변 궤도를 맴도는 혹성격(惑星格)인 자녀들은 핵인 어머니가 발산하는 열량에 따라 그 온도가 정해진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 유용여건이 핵과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면 핵과의 거리가 적당해야 한다는 조건은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열량(사랑)이 일정하고 충분할 때 자녀들은 유용 여건을 갖추게 되고 원만한 움직임이 가능한 존재로서 삶을 유복하게 영위할 수 있다.<sup>39)</sup>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극복할 힘이 있는데,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삼각화를 만들려 한다. 이는 표상 속에 내재되어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구 노력이다. 보웬은 건강한 자아분화와 탈 삼각화를 통하여 자기 입장(I-position)을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코헛은 사랑과 관심과 공감이라는 심리적 산소를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를 찾아 감으로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보웬과 코헛의 이론을 통하여 역기능의 요소가 세대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세대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대화에 두었고, 심정 대화를 통한 가족치료 방안을 모색 하였다. 대화는 인체에 혈액 순환과 같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듯이 원활한 대화 없이는 건강한 가정생활도,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생활도 어려워진다. 대화할 때 공감하고 반영하고 인정하는 심정 대화를 통하여 치료 방안을 제시 하였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이 먼저 화육(化育)하심으로 사귀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관계로서의 인간은 만남의 수단이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의 통로는 대화 이다. 대화는 언어란 매개를 통하여 전개된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진실을 언어(Verbal) 및 비언어(Nonverbal)로 전달한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만남을 통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더 나아가 내안에서 사랑이 흘러 내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 내려가게 된다.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순수하게 줄 수 있으며, 줌으로써 다시 받을 수 있다.<sup>40)</sup>

가족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질을 중요시 한다. 페어베언은 상담자의 인격 안에 있는 좋음의 요소가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돌봄이 내담자를 건강한 자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고, 코헛의 경우 상담 관계에서 제공되는 좋은 관계 경험의 요소를 ‘심리적 산소’라고 하였다. 좋은 관계의 경험이 치료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sup>41)</sup>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면 상담자의 인격과 태도는 상담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흔히 요구되는 인격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심리적인 과업에 대한 동기 부여, 적절

39) 임종렬, “대상관계이론과 가족치료,” 『사회복지연구소』, 20권,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2), pp. 111-112.

40) 심수명, 『한국적 이마고 부부치료』 (서울:다세움,2006), pp. 241-242.

41) Richard Dayringer,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u Relationship* (New York: Haworth Pastoral Press, 1988), pp. 48-50.

한 자기 조정, 내담자들의 욕구들에 대한 방향 감각, 적절한 사회적 적응, 지적인 유능함, 정직, 치료 능력 등이다. 데이링거(Richard Dayringer)는 이에 대해 목회상담자의 인격적 요소들로서 영적이고 신체적인 생명력과, 품위와 균형, 낙관주의, 신뢰감, 그리고 통찰력을 제시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은 모습을 견지하며 아울러 상담가에게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내담자를 대할 때 태도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 내담자들이 그들 자신이 되고 그들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관대함,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해주는 수용, 경직된 체계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유연성, 진정한 감정들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자발성, 지레짐작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을 사용하는 구체성,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특별히 언급하는 직면, 내담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유사한 것들을 들어내는 자기노출을<sup>43)</sup> 통하여 라포를 형성해 간다.

위니콧은 초기에 좋은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을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라 하였다. 충분히 좋은 엄마는 부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엄마이다. 때문에 초기의 건강하지 못한 대상관계 경험으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는 초기에 엄마가 제공해 주어야 했던 양질의 경험을 제공해서 정서적으로(영적으로) 재 양육(reparenting)시킬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상담자(혹은 목회자, good enough counselor or pastor)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충분히 좋은 경험은 공감, 안아주기, 반영 등이다. 위니콧은 이러한 경험들이 주어지는 엄마의 양육 환경을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이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아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교회가 초기 관계 경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여, 치료되고 가정으로 치료의 기쁨이 전이되도록 해야 한다.

## V. 결론

본 논문은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족치료 연구 논문이다. 연구를 위하여 대상관계 학자들의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문헌적인 고찰과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건강한 자아 분화, 탈 삼각화, 자존감 회복을 통하여, 세대전이 되는 역기능을 심정대화를 통한 가정회복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산업화 전후의 가정을 비교 하였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신학적 관점에서의 기독교 가정을 살펴보고, 한국 문화속의 녹아있는 타종교와 심리적 특징과, 한국 기독교 가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가정은 아직도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유교의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교의 사상은 예(禮)와 효(孝), 조상숭배(祖上崇拜)를 중심으로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효 사상이다. 오륜(五倫) 사상 중 부자유친 사상은 남자에게만 상속권이 허락 되게 하였고, 남존여비의 상황을 만들어 여성들에게 한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다. 장유유서 사상은 질서의식을 심어주어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권위의식을 낳았으며, 국가적으로는 군신(君臣)간에 복종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한국 가정

42) Richard Dayringer, Ibid., p. 51.

43) 문희경, “대상관계 이론의 관계중심 목회 상담적 적용 가능성 연구,” 『충신박사논문』, p. 110.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라는 집, 사랑보다는 정(情), 체면, 서열의식, 집단의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의 사항을 이해해야 한국의 가정과 국가도 이해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얽혀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가정을 성서적으로 조명하여 해석하려는 신학자는 에밀 브루너(E. Brunner) 였다. 브루너는 가정의 존재론적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The Divine Order of Creation) 그 자체이며,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의 한 구체적 표현으로 이해했다. 창조질서로서의 가정이란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어진 것’(givenness)이며 또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가 된다는 신비적 연합의 존재 구조로서 에로스(eros)와 필리아(philia)의 경험 속에서 아가페(agape)를 경험 할 수 있다고 본다. 브루너가 주장하듯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 한국의 기독교 가정도 유교, 불교, 무속의 영향과 정(情), 체면, 서열의식, 집단의를 영향에서 역기능적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이 평등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며 가정생활을 하여야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참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연구자는 대상관계를 통한 접근으로 회복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참고문헌

- 고정자(2002). 『현대가족문제론』.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고용수(1998). “경제위기와 가정 사역” 『교회와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광열(2005). “총체적 복음과 구원, 그리고 총체적 회심,” 『신학지남』.
- 김현식(199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문희경(2006). “대상관계 이론의 관계중심 목회상담적 적용 가능성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염정수(1981). 『한국 가톨릭 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오영희외(2007). 『가족관계』. 서울: 동문사.
- 유영주외(2009). 『가족 관계학』. 경기: 교문사.
- 임종렬(1992). “대상관계이론과 가족치료,” 『사회복지연구소』, 20권,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임태섭(2002). “못다 한 정은 한으로 남는다,”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 나무.
- 정운길(2000).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차영길(2006). “온전한 위한 효과적인 목회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논문.
- 최재락(2004). “인격장애 안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종교경험,” 『기독교상담학회지』.
- A. M. Rizzuot(1990). *The Origins of Freud's concept of object representation in his monograph 'On Aphasia': Its theoretical and technical importance.* Int. J. Psycho-Anal. 71.
- Chares Sell(1992).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외 역. 서울: 두란노.
- Dolores Curran(1985). *Stress and the healthy family*. Minneapolis: Winston press.
- E. Brunner(2003).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전택부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 G. Harkness(1978). 『기독교윤리학』 김재준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Hanna Segal(1999), *Melanie Klein* 이재훈역.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 Jay E. Adams(1980), *Solving Marriage Problems* (N. 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 존 브래드쇼(2006). 『가족』, 오재은역. 서울: 학지사.
- Lewis J. Sherrll(1954).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P. Buckley(Ed.)(1986). *Essential Papers on Object Relations*. Introduction.
- R. Hunter et. al(1992)., *Dictional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Richard Dayringer(1988),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th Relationship* (New York: Haworth Pastoral Press).
- Stanton L. Jones 외(1995). 『현대심리치료법』, 이관직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